어깨동무, 문화와 산업, 비판용어, 그리고 무더위와 땀

한여름 같은 5월의 녹음 속에서 6월호를 내보냅니다. 마감을 위해 밤 늦도록 일을 하는 기자들은 텍스트와 싸우고, 인터뷰를 섭외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또 하나의 적군, 모기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옛날 출판저널이 그립다', '왜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드는가' 항의하는 독자들의 전화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전화에는 '순수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 5·16, 5·17, 5·18이 차례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출판저널〉 사무실이 있는 창문 너머는 미국 대사관 사택공간입니다. 아주 높다란 담장을 두르고 있는 대사관 직원들의 조국, 미국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 있는 동안 나라 전체는 저자세 외교니, 굴욕외교니 하는 말들로 시끄러웠습니다. 〈출판저널〉의 기획과 취재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래서 5월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서평지로 위상을 굳건히 지켜왔던 〈출판저널〉에 대한 격앙된 비판이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과 익명으로, 그것도 장작패듯 난무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비판받는 게 두렵고 싫어서가 아닙니다. 비판의 격조, 냉철한 분석, 발행처 변경 이후 제자리를 잡기까지 일정기간 지켜봐 주는 애정어린 인내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건대, 〈출판저널〉의 편집과 취재 방향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시종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늘상 하는 얘기는 '대안 없는 비판처럼 무모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에 기대어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을 기다렸지만 일부 출판평론가와 저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감정 섞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는 비천하고 경박하다는 뜻에서 가져온 천박한 어휘도 비판용어로 동원돼 있었습니다. 그런 비판이 우리 문화를 살찌게 하는 것인가. 단언컨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대안 없는 비판을 쏟아내고도 모르쇠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역구 유권자만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출판문화인들은 정치를 하기 위해 출판문화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문화는 아주 오래도록 기억되고, 기록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토씨 하나, 낱말 하나에도 문화의 층위에 대한 눈금을 정확하게 들이대어 2003년 출판문화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미래의 그들은 지금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강한 정보로 무장한 지식의 역군들일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서 저는 묻습니다. 그 비판들 속에 당당하지 못한 점은 없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출판시장은 광의로는 문화이고, 협의로는 산업입니다. 그 문화와 산업의 본모습을 릴리스하는 〈출판저널〉은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를 달리는 하나의 문화기저입니다. 당연히,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와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출판인·독자·편집자·저자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대안이 뚜렷한 비판을 가하고,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읽어 주어야 합니다. 무릇, 문화란 관심을 먹고 자라는 생물과 같은 것 아닙니까. 무릇, 문화란 어깨동무를 할 때 꽃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욱 녹음이 짙어질 것입니다. 그 녹음에 버금가는 관심을 다시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녹음과도 견주어 결코 모자라지 않는 관심을 자양분 삼아 한 마리 지렁이가 땅을 갈아엎어 생명을 순환시키듯 〈출판저널〉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비전을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6월호부터 지면을 개편한 것은 그 약속의 일단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곧 무더위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출판저널〉을 사랑하고, 고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을 생각하며 땀을 훔치겠습니다.

임동현_본지 주간